

다산포럼

정조의 수명이 짧았다?



황 상 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지난 겨울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다녀왔다. ‘역사문화 탐방’이라는 취지의 답사 기행이었지만 ‘성지 순례’를 목적으로 참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첫 번째 방문 장소는 카이사리아라는 고대 도시였다. 로마 공화정 시대 군인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영어식으로는 줄리어스 시저, 기원 전 100~44년)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리아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기행단을 인솔한 로마역사 전공 교수는 고대 유적 앞에서 카이사르 암살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56세라는 나이에 전혀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았다고 강조한다. 그 교수는 또 카이사르나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나중에 로마제국 첫 번째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전혀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도 없이 카이사르의 죽음을 맞아 혼란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정춘 특·특



김 선 민
동신대학교 중국어학과 2학년

“감사합니다.” 요즘 동신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다.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동신대학교는 교과과정에서 인성교육과 함께 작년부터 드림 투게더 333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하기, 일주일에 3가지 이상 선행하기, 한 달에 3권 이상 책읽기가 주요 내용인데 일상 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통해 좋은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중 감사하기와 관련해 매일 하루 3가지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는 감사수첩과 학교 곳곳에 감사의 메시지를 적어 걸 수 있는 감사나무가 생기면서 사소한 것에

도 감사함을 느끼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말로써 표현하는 등 우리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 큰 대학생들에게 무슨 인성교육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주의의 폐해로 인해 인성교육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요즘, 대학생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인성이며,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수양해야 하는 것이 인성이라고 본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타인과 함께 일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기에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인성 중 가장 기본이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드림 투게더 333 캠페인, 특히 감사하기를 통해 학생들이 누구를 만나든 크게 인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면서 대학 분위기가 더 밝고 활기차졌다. 교수와 학생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그리고 스쿨버스를 타고 내릴 때 기사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라는 언급이 있다. 글의 필자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정조의 ‘요절’을 안타깝게 여기며, 나이가 정조가 더 오래 살아 더 오랫동안 통치했으면 이후 우리나라(조선)의 역사가 한결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조는 1752년 10월 28일(음력 9월 22일)에 태어나 1800년 8월 18일(음력 6월 28일)에 세상을 떠났다. 만 48세도 채우지 못했다. 지금 한국인 남성의 평균수명 78세에 비하면 30세가량 명이 짧은 것이다.

한편 정조가 국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1776년부터 1800년까지 24년이다. 조선 시대(1392년~1910년) 국왕 27명의 평균 재위기간 19.2년보다 5년가량 오래 나라를 통치했다. 박정희의 집권기간(군사정권 시절 포함) 18년 5개월보다는 6년 가까이 긴 시기 동안 만민지상의 자리를 지켰다.

따라서 정조의 아들 순조가 만 10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외척의 전횡 등 문제가 많았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조의 통치기간이 짧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라고 일컫는 영·정조 통치 기간은 도합 76년에 이른다.

다시 정조의 ‘요절’로 돌아오자. 조선 국왕 27명의 사망 연령을 평균 내어 보면 46.1세이다. 숙부 세조에게 살해 당해서 제 명을 채우지 못한 단종을 제외하면 47.3세이다. 정조는 평균 정도를 산 셈이다.

생물연대를 알 수 있는 왕자(대군·군)와 왕녀(공주·옹주)의 수명은 평균 30세 가량이다. 왕자(97명)는 31세, 왕녀(86명)는 28세 정도 된다. 따라서 조선의 국왕들은 다른 왕자들보다 16년 정도 더 살았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왕들이 모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영유아기(0세~4세)를 지나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순조의 아들 헌종이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만 7세 때였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의 수명을 말해주는 자료는 아직 발굴된 바 없다.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자료와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자료와 연구를 종합해보면 조선시대 수명은 기껏 30세, 또는 그 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50세까지 사는 남성은 약 20%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정조는 결코 명이 짧았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 형편으로는 상당히 장수한 편에 속한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과거를 읽는다면 역사의 진실을 놓치게 된다. 단지 이러한 사례뿐이래

社 說

새정치연합 회생 호남정치권이 주도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의 존재감을 상실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7·30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새정치연합이 계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홍을 거듭하는 등 ‘식물 정당’으로 전락한 때문이다. 혁신 의지가 실종된데다 정권 창출의 비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새정치연합 호남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당의 존폐 위기에도 기회주의적 처신과 계파에 휩쓸려 이렇다할 역할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경우 과감한 도전과 문제 제기를 통한 정치적 비전 제시와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한 채 정치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

이를 보는 지역 민심은 허탈과 분노를 넘어 이반현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땃방’으로서 배신감마저 드는데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차체에 호남지역 정치권을 새판으로 갈아 활력을 되찾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20대 총선을 1년 7개월가량 앞두고 벌써부터 ‘몰갈이’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처럼 지역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지 중진 의원들도 당 지도부 도전을 통해 ‘살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 지도부 입성이라는 당 내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한다면 자기 총선에서 몰갈이 태풍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현재 지역의 여러 중진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사분오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서로 물고 뜯는 반목이 계속될 경우 호남 정치의 몰락은 불보듯 한 일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각기 정하고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새정치연합의 회생은 호남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호남 출신 가운데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중진들이 지도부에 진입해 호남 정치권의 재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광산구 건축행정 난맥상 이대로 둘 건가

광주시 광산구가 도로계획 선에 저촉된 부지에 연립주택 허가를 내줬다가 준공을 코앞에 두고 철거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건축 인허가 관련 비리로 담당 공무원들이 잇달아 구속되는 등 뒤숭숭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또 다른 비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지난 2011년 7월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476-1번지에 연 면적 1553㎡(469.8평) 규모의 연립주택(5층·16세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착공에 들어간 A씨는 공사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가 최근여야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광산구는 부랴부랴 연립주택 16세대 중 8세대에 대한 부분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이 연립주택엔 세입자 6세대가 지난달 초 사전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

축범상 허가권자인 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사전 입주를 시킨 것이다.

불법 건축물이 2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일부가 준공 전에 사전 입주까지 한 상황에 인허가 관청이 몰랐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리 유착설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또 비리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번 연립주택 철거는 광산구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한 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했다면 다 지은 건축물을 허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광산구는 이번 연립주택 철거 논란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법적 책임과 함께 퇴출시켜야 한다. 더불어 건축행정 시스템상 허점을 파악해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담양은 음식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대통밥, 떡갈비, 국수, 창평국밥, 돼지갈비 등 대중에게 인기 있는 메뉴가 모두 담양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담양읍내 곳곳에는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을 능가하는 맛집들이 많다. 전국에서 찾아오는食客들로 월 매출이 억대를 넘는 곳도 있다.

맛의 고장 담양에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남도음식문화콘찬치가 열렸다. 이 전지는 지난 20년 동안 순천 낙안읍성 한 곳에서만 개최돼 왔지만 프로그램이 매년 비슷하고 별다른 특징이 없어 전국적인 명성을 잃게 됐다. 올해 개최지를 담양으로 변경한 것은 남도음식문화콘찬치의 명성을 되찾고 전라도 음식을 한류의 중심에 올려놓기 위한 조치였다.

관방전과 축북원 일원에서 열린 축제는 일단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토적인 풍경이야 낙안읍성에 미치지 못하지만 관방재림의 가로수와 축북원의 풍치, 전남도립대의 넓은 부지가 어우러져 3일 동안 3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음식경연대회

는 예년과 달리 전국에서 다양한 대학생들이 참가하고 다문화가정 출신 주부가 나와 남도음식의 퓨전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

시·군 경연에는 진도 대표로 나온 필리핀 출신 가정주부가 눈길을 끌었다. 시어머니에게서 남도음식을 배웠다는 이 여성은 경연장 한 칸에서 2시간 동안 떡을 만드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2인1조로 나온 다른 팀과 달리 혼자 출전해서 진도 특산물인 울금을 이용해 지어낸 떡은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너무 단순한 메뉴 때문인지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남도음식문화콘찬치는 전라도 음식의 전국화에 크게 이바지한 남도의 대표인 축제다. 전남도도와 22개 시·군이 뜻을 모아 각 지역의 대표 음식을 한자리에 모아놓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도 음식문화를 이끌게 된 것이다.

한류의 완결판은 음식이라고 한다. 올해 남도음식콘찬치는 음식 한류의 중심에 남도음식이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남도음식축제

기 고

화순 적벽 개방, 오랫동안 감동 느끼려면



김 종 일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혼잡한 버스 안. 흙먼지 날리는 꾸불꾸불한 도로에 배낭과 손에 잔뜩 짐을 싸고도 강변을 따라 걷는 사람들. 거대한 절벽과 맑은 물, 그리고 계곡을 따라 형성된 나무그늘과 모래사장. 물놀이와 뱃놀이 그리고 천렵을 즐기는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적벽을 여행했던 고교시절의 어슴푸레 떠오르는 잔상들이다. 당시 적벽은 전남도민 모두가 방문하고 싶은 명소였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즐겨찾는 소풍 장소이자 유원지였다.

화순적벽은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에서 보산리까지 동북천을 따라 발달한 경승

지를 일컬으며, 곳에 따라 이서적벽, 물영적벽, 보산적벽, 창랑적벽 등으로 불렸다. 이중 이서적벽의 규모와 경관이 가장 뛰어나는데, 1519년 기묘사화로 동복에 유배중이던 최산두(崔山斗)가 중국 양쯔강의 적벽에 비유가는 절경이라 하여 명명한 것이라 한다. 방랑시인 김삿갓(원명 김병언)이 적벽의 아름다움을 여러 편의 시로 남기고, 인근 동복에서 생을 마감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1980년대 초반 동복댐을 확장하면서 진입로와 적벽의 일부가 수몰되었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30여년이 지났다. 필자는 환경부 자연환경조사, 담 주변지역 조사 등의 목적으로 출입허가를 받고 몇 차례 적벽을 방문한 적이 있다.

꾸불꾸불한 임도를 따라 한참을 달려 마침내 절벽과 동복호의 원초적 절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고교시절 적벽가 가까이에서 바라본 모습과는 또 다른 감동을 느꼈다. 외지에서 함께 간 사람들도 우리లా 호수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화 ‘고지전’, ‘쌍화점’과 드라마

‘근초고왕’, ‘대왕의 꿈’ 등의 촬영지로 이용돼 왔다는 것만으로도 경관의 아름다움과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필자는 10여년전부터 적벽의 명소화를 주장한 바 있다. 뒤늦긴 했지만 적벽의 제한적 개방 함의를 이끌어낸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하며, 민선 6기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지역상생 협력의 첫 결실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적벽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상수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인 만큼 탐방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이 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탐방객의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진입로로 이용될 임도는 협소하고 위험구간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 적벽 인근에는 망향정, 망배대, 망미정, 화정실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연스러운 탐방로를 정비하는 것 이

외에는 더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자연경관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문화재 명승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관광 분야의 해설사를 양성 배치해 탐방객의 요구에 부응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무등산권 지질공원에 적벽을 포함시켜 생태 및 지질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인근의 정자들과 그곳을 거쳐갔던 역사 인물을 스토리텔링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적벽 외에 중국과 인연이 깊은 주자묘, 정율성 흉상 및 노래비, 운주사, 천태산 등의 명소를 연계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적벽은 무등산 너머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담 수몰지역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동복호의 수질보전과 탐방객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이고, 낙후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벽 개방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창춘특·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